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성주군이전 건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 2 .
제 출 자 : 이수경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북도청 및 산하기관 이전은 도민의 절대적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도산하기관의 이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별 기능과 특성 그리고 그 지역의 역할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도청 유치신청 탈락 지역의 여론무마를 위한 나눠먹기식 배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임.

○ 우리 성주는 성산가야(星山伽倻)의 옛터로서 민족의 영산인 가야산국립공원과 무흘구곡, 성주호, 세종대왕자태실, 한개마을, 성밖숲 등 수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寒岡 鄭逑, 東岡 金宇顒, 心山 金昌淑, 寒洲 李震相** 선생 등 애국지사와 명현거유를 배출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고장임.

○ 따라서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위와 같은 천혜의 입지조건과 편리한 교통망 그리고 군민의 열화와 같은 여망을 담아서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성주군으로 이전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경상북도지사와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이전 건의안으로 채택코자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교육원으로서 최적의 자연환경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 도내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용이한 편리한 교통망과
○ 김천 혁신도시와 가깝고 입지여건이 좋은 국립공원 가야산 일원을 공공기관 연수원 및 교육기관의 “클러스터(Cluster)화”를 구축할 수 있어 지역간 연계기능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지임.

3. 건의내용 : 별 첨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성주군이전 건의(안)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으로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에 의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도청이전 정책은 웅도 경북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역사적 소명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경북도 민선4기의 비전인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상북도"**구현은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농촌을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균형발전을 이룩하려는 새로운 비전으로써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는 성산가야(星山伽倻)의 옛터로서 민족의 영산인 가야산국립공원이 자리잡고 무흘구곡, 성주호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리나라 최대의 왕자태실인 세종대왕자태실,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성주한개마을, 500년을 이어온 천연기념물인 성밖숲 등 군내에 산재해있는 수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寒岡 鄭逑, 東岡 金宇顒, 心山 金昌淑, 寒洲 李震相** 선생 등 애국지사와 명현거유를 배출한 유림의 고장이며 영남의 큰 고을로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경북 남서부에 위치한 우리군은 경상북도의 각종 주요 정책사업 등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며 지난 1965년에는 인구가 12만명에 달하는 등 경북 남서부지역의 중심지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나, 1970년대 중반이후 산업화와 대도시로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인구 5만도 채 안되는 중소군으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새로이 정비·확충하고 지역의 주력 특산물인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경쟁력 향상과 "공항, 철도, 고속국도"가 없는 삼무(三無)의 고장이었으나 지난 2007. 11. 30 중부내륙고속국도의 개통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정부의 국토개조 프로젝트인 "경부운하 건설"과 경상북도의 도청 및 산하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부응하여 대도시 근교 도시로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미래형 도·농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편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영남의 영산인 가야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공무원교육원 이전지로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춤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유치의 당위성과 최적지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공무원 교육원으로서 최적의 자연환경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하의 절경인 가야산 국립공원 기슭에 위치하여 빼어난 자연경관과 푸른숲, 맑은물, 깨끗한 공기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국민호텔, 온천), 야생화 생태식물원, 각종 동·식물(동물-멧돼지외 640여종, 식물-환경부 보호야생식물 6호인 솔나리외 650여종)과 천년 고찰인 심원사와 도지정문화재 제86호인 법수사지 3층석탑, 인근의 해인사와 세종대왕자태실, 한개마을, 성밖숲 등이 산재해 있어 심신을 단련하고 교양을 수양함에 있어 공무원 교육원으로서는 최적의 자연환경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道 어디에서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기존의 편리한 교통망과 더불어 중부내륙고속국도의 개통으로 성주IC 및 남성주IC와 유치예정지가 10분 거리이며, 또한 국도 30호선의 4차선 확포장 완공과 국도33호선 성주-고령간 4차선 확포장 공사시행 등 편리한 교통망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인근 김천의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 등 연계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서울, 부산은 물론 우리도내 어디에서도 2시간 이면 오고 갈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간, 연계기능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성주입니다.

성주는 대구광역시와 고령군, 김천시 등의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타 지역과의 연계발전이 가능하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구·경북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대구·경북의 공무원교육원의 통합 시에도 접근성 등에서 최적의 장소이며, 한편 중부내륙고속국도와 잘 연계된 도로망은 대구, 김천, 구미, 칠곡, 고령, 청도 등 인근시군까지 30분 이내의 동일 이용권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성주가 균형발전 거점지역으로서 최적입니다.

또한 김천 혁신도시와 가깝고 입지여건이 좋은 국립공원 가야산 일원을 공공기관 연수원 및 교육기관의 **“클러스터(Cluster)화”**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인근 대구의 대학교 등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도청 및 산하기관 이전은 “집중과 선택”에 의한 파급효과극대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도민의 숙원이었던 도청 및 산하기관 이전은 도민의 절대적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 기회로 활용 되어야 합니다.

경상북도의 장기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남부권은 대구·경북의 경제통합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북부권은 도청이전을 전제로 한 행정중심도시”, 동해안권은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서부권은 김천의 혁신도시 유치”, 등으로 지역발전의 기대에 부풀어 있으나, 서남부권(성주, 고령등)은 상대적으로 경북도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에서 많이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인 것을 밝혀두며,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에 의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산하기관 이전정책은 도청 유치신청 탈락지역의 여론무마를 위한 “나눠먹기식” 배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역별 기능과 특성 그리고 그 지역의 역할에 맞는 도 산하기관 이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열화와 같은 여망을 담아서 도청 및 산하기관의 이전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되고 웅도 경북의 자존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성주가 이러한 정책실현에 앞장서고 모범이 될 것을 천명하고,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우리지역으로 이전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이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합니다.

2008년 2월 일

성주군의회 의원 일동